

대만 선교 소식 (2021. 6월)

“하나님께서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대만은....

대만은 뒤늦게 이제 1년전 한국의 상황을 재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세계가 코로나19로 봉쇄와 사회불안, 공포로 뒤덮일 때 대만은 그와 무관한 듯 평온한 생활을 누리며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은 많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감염과 강한 처벌을 두려워하여 당국에서 허용하는 실내 4인 모임조차도 꺼리며 왕래를 하지 않고 생계를 위한 일 외엔 집밖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종종 캠퍼스 땅 밟기를 했는데 이제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근처 산행을 몇 번 했습니다. 경치 좋은 산마다 자리하고 있는 절과 사당들을 보면서 대만에 깊게 뿌리내린 각종 민간신앙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어떤 신이든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숭배하면서도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편하게 믿으려 합니다. 이런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은 코로나로 인해 신앙이 더욱 해이해질 우려가 큼니다.

대만은 기독교 역사가 한국보다 더 오래되었는데도 기독교인이 4%에 그칠 만큼 선교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적은 무리지만 깨어 열심히 기도하며 선교에 관심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대만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나팔수로 저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제자도’와 ‘선교적 교회’의 확립에 대한 사명을 꼭 붙잡고 나아갑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 지역 구제품 전달



타이베이 젠탄교회 방문 구제품 전달

이번 달 확진자와 사망자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타이베이 萬華區라는 집단감염지를 모두 봉쇄한 일이 있습니다. 그곳은 노숙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 지역에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사역하는 대만 목사 부부와 연결이 되어 방문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 지역에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돕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되기에 어쩔 수 없이 구제품을 소포로 전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이베이의 다른 區의 교회 중 방문 가능한 교회에는 직접 가서 구제품을 전달하였습니다. 한국의 교회에서 보내주신 마스크와 옷 등이 있었기에 적기에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비록 적은 물품이었지만 한국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것이라고 하자 저희가 주님의 천사가 여기 가까이 있는 것을 몰랐다면 큰 위로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모임

대면 모임이 일체 불가능하게 되어 모든 집회와 모임을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2 멘토링과 자모 독서회 리더모임을 몇 번 해 보면서 차츰 익숙해지고 분위기도 잡혀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원탁 교제(식사와 차)를 하면서 삶을 나누는 방식으로 모임을 해오던 저희로서는 이런 온라인 모임이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나 반면, 다른 도시에 있는 분들과는 자주 나눔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지혜롭게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마치고..리우 목사 가족

지난 번 편지에 제자도에 관한 교재를 집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교재로 멘토링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와 멘토링을 하고 있는 리우 목사는 이 책의 내용이 매우 신선하고 도전이 된다고 대만뿐 아니라 繁體字를 쓰는 화교권에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문서를 통한 선교

사실 저는 선교의 자유가 없는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문서선교의 중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기독교 역사를 주제로 석박사논문을 쓴 중요한 목적은 학위자체보다도 이 논문을 통해 기독교를 변증하고 학계에 기독교를 알리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국인으로서는 쓰기 어려운 기독교 관련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씀으로써 합법적인 문서선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일반인을 위해 ‘중국 기독교사’를 논문이 아닌 책으로 출판하기 원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종교서적이란 검열에 막혀서 출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여년간의 중국에서의 연구와 경험을 정리한 ‘광야에 세우는 십자가’를 추방직전에 완성하였습니다. 사실 그 책의 내용은 중국에 있는 형제자매,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중국의 종교정책 때문에 아직까지도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안타까움은 한시도 제 마음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중국 선교경험을 전할 때 기뻐하며 듣고 싶어하는 성도들을 만나면서 다시금 소망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이들의 요청은 제게 큰 격려가 되었고 이 책이 화교권과 장차 중국 본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읽힐 것을 바라면서 중국인의 관심사와 눈높이를 생각하며 원고를 수정 보완했습니다.

한창 사역이 열려지려고 하는데 집회금지 조치가 내려져 실망이 될 때에 주님은 이 기간동안 집중하여 글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섬세한 인도가 놀랍기만 합니다. 번역과 출판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이 또한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책이 나오면 대만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데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어 그 후의 일이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후원 교회와 함께하는 동역자님들의 기도예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강건케 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 제목

1. 코로나 확산과 백신 공급 미비로 두려움에 빠진 대만인들이 이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위해. 방역등급이 조정되어 집회가 재개되게 하소서.
2. 대만교회 내에 선교에 대해 무관심, 반감이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깊이 자리하고 있는 정치적/신학적 입장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3.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과 리더모임을 통해 제자훈련이 중단없이 지속되게 하소서
4. 저희 부부가 겸손히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문서 사역에 기름 부어 주소서.
 - ‘광야에 세우는 십자가’ 책의 중국어판 완성과 출판을 위해
 - ‘제자도’ 교재 집필 완성과 출판을 위해

2021년 6월 26일, 대만에서 황 창연, 오 순영 올림